

## 산후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위한 환자의 의료 이용 경험 및 인식도 조사

<sup>1</sup>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교실, <sup>2</sup>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sup>3</sup>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부인과  
권나연<sup>1</sup>, 김동일<sup>2</sup>, 윤영진<sup>3</sup>, 박장경<sup>3</sup>

### ABSTRACT

#### A Survey on Patient's Experience and Percept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for Developing of a Korean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Puerperal Wind Disorder

Na-Yoen Kwon<sup>1</sup>, Dong-Il Kim<sup>2</sup>, Young-Jin Yoon<sup>3</sup>, Jang-Kyung Park<sup>3</sup>

<sup>1</sup>Dep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sup>2</sup>Dep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up>3</sup>Dept.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the patient's perspectiv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Korean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 of puerperal wind disorder by survey.

**Methods:** Five hundred fifty patients were surveyed from November 3rd, 2021 to November 8th, 2021 by interne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cross-sectional survey, study,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on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postpartum symptoms, the history of using treatment institution for puerperal wind disorder, satisfa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perception of postpartum care.

**Results:** Survey results showed that 92.0% of respondents experienced symptoms after childbirth, and 56.2% of the symptoms were arthralgia, followed by obesity with 41.8%. Among puerperal wind disorder patients, 34.2% had treatment history, and 54.3% received Korean medical treatment. Treatment satisfaction was confirmed to be higher in Korean medical treatment. The necessity of postpartum care was recognized at 95.7% of respondents, and the performance rate of traditional Korean postpartum care was also high.

**Conclusions:** Based on a realistic patient-centered basis, it is a study that can lay the foundation for standardizing Korean medicine treatment and strengthening coverage in the future.

**Key Words:** Puerperal Wind Disorder, Korean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Survey, Perception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 HF21C0072)”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HF21C0072)”

Corresponding author(Jang-Kyung Park) : Pusan National University, Geumo-ro 20,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Tel : 055-360-5978 E-mail : vivat314@pusan.ac.kr

## I. 서론

산후풍은 출산 또는 유산을 경험한 부인이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얻은 증상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sup>1)</sup>. 산후풍의 진단적 정의를 규정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에 의하면, 출산이나 유산 후 발생한 전신 혹은 국소의 통증, 감각장애 및 땀이 많이 나고,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나 추우면 증상이 심해지고, 추위가 싫은 것이 산후풍의 주증상이 된다<sup>2)</sup>.

임산부의 몸은 에스트로겐과 릴랙신 등의 호르몬 증가로 인해 골반 관절의 가동성이 증가하고 외부 물리적 자극에 취약하다<sup>1)</sup>. 이때, 임신 중 증가한 체중이 여러 관절에 부담을 주며,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산욕기에 특정 관절이나 인대를 과사용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조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산후풍이 발생한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초산연령이 높아지고, 출산 후 경제활동으로의 복귀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산후조리와 산후풍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은 증대할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

임상진료지침은 특정 의료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여 임상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개발 과정에서 환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현재까지 산후풍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는 2018년 정 등<sup>5)</sup>이 발표한 '산후병을 경험한 여성의 산후조리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가 있었으나, 연구 자료가 2011년의 자료로

10년 이상 경과했고, 연구의 대상이 특정 도시 1개소로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후풍을 경험한 여성의 증상, 치료 여부, 한·의과치료 수진률 및 만족도,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산후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서 환자의 관점을 반영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업체에 등록된 패널 중 출산 경험이 있는 20~50대 여성에게 온라인으로 설문문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 방법

설문지는 먼저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1건의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일반인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 평가 후 2인의 한방부인과 교수가 각각 해당 설문지를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개발 완료된 설문지는 온라인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하였다.

### 3. 윤리적 검토

본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 연구를 위해 직접적인 조작을 수행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민감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심의 면제를 승인 받았다(PNUKHIRB 2021-11-001).

#### 4. 통계 분석

본 연구는 탐색적 단면 조사 연구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후 경험한 증상, 산후풍으로 치료 기관을 이용한 이력 및 이용한 의료기관 종류와 만족도, 향후 산후풍 경험 시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 기술 통계 및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복수 응답에 해당하는 문항은 복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Microsoft Excel(version 16.0; Microsoft, Redmond, WA, USA)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 Ⅲ. 결 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총 1,525명이 접속하였고 604명이 응답하였으며, 불충분한 데이터 54명을 제외한 5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 총 550명 중 50대가 42.7%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기혼이었으며, 직업은 '주부'가 41.5%로 가장 많았고 평균소득은 '7백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졸 학력'이, 거주지는 '인천, 경기, 강원'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Table 1).

#### 2. 응답자의 산과적 특성

응답자 총 550명의 출산인원은 1명인 경우가 30.5%, 2명인 경우가 60.5%, 3명인 경우가 8.9%를 차지하였다. 출산 방법은 자연분만이 61.0%, 제왕절개 분만이 34.6%,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을 모두 시행한 경우가 4.2%, 그 외 기타 방법이 0.2%를 차지하였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Age	20~29	1.6
	30~39	16.4
	40~49	39.3
	50~59	42.7
Marriage	Yes	99.1
	No	0.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0.2
	High school graduate	22.7
	Bachelor	40.0
	Master/Doctor	7.1
Residence	Seoul	30.6
	Incheon/Gyeonggi /Gangwon	37.2
	Busan/Daegu/Ulsan /Gyeongsang	17.7
	Gwangju/Jeolla/Jeju	8.1
	Daejeon/Chungcheong /Sejong	6.4
Occupation	Housewife	41.5
	Office worker	35.6
	Self-employment	5.3
	Part-time	4.2
	Technical workers	3.1
	Public officer	2.4
	Individual /Corporate manager	0.9
	Not employed	0.9
	Graduates	0.2
	Blue collar workers	0.2
	Others	5.8
Average household income (per month) (won)	~1 million	1.6
	1~2 million	2.5
	2~3 million	10.4
	3~4 million	16.4
	4~5 million	15.8
	5~6 million	19.3
	6~7 million	10.7
7 million ~	23.3	

Table 2. Obstetr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The number of birth	1	30.5
	2	60.5
	3 or more	8.9
Ways of delivery	Normal delivery	61.0
	Cesarean section	34.6
	Normal delivery + Cesarean section	4.2
	Others	0.2

3. 산후에 경험한 증상

응답자 총 550명을 대상으로 산후에 경험한 증상을 분석하였다. 그중 8%는 출산 후 증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92%는 출산 후 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산후 경험한 증상은 관절통증이 56.2%로 절반 이상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

였고, 그다음으로 비만, 부종, 피로함, 사지 감각변화,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 치아 잇몸이 시리거나 아픔, 무기력함, 항배통, 정서장애, 추위가 싫음, 발한, 눈의 피로, 어지러움, 불면,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산후 증상을 묻는 문항에서 '허리, 무릎, 발목, 손목 등 관절 또는 전신 관절의 통증', '팔, 다리 등이 저리고 시린 등의 감각의 변화', '추우면 증상이 심해지고 추위가 싫음',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 '치아, 잇몸이 시리거나 아픔'에 체크한 응답자를 산후풍 유증상자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전체 응답자 550명 중 산후풍 유증상자는 442명으로 약 80.4%에 해당하였다(Table 3).

Table 3. Symptoms of Postpartum Disease (Multiple Responses)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age of respondents (%)
Arthralgia	309	56.2
Neck and shoulder pain	155	28.2
Sensory impairment	179	32.5
Chilling	136	24.7
Feeling the wind all over the body	170	30.9
Sweating	102	18.5
Fatigue	196	35.6
Lethargy	160	29.1
Insomnia	57	10.4
Dizziness	66	12.0
Blurred vision	79	14.4
Toothache	164	29.8
Emotional disorder	149	27.1
Edema	204	37.1
Obesity	230	41.8
The others	10	1.8
No symptoms	44	8.0

4. 산후풍의 원인

산후풍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된

응답자 442명을 대상으로 산후풍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중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면역력이 약해져서'가 25.6%, '출산 전후 스트

레스를 많이 받아서'가 23.8%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ause Perception of Postpartum Disease

	Poor postpartum care	Stress	Overwork	Physical constitution	Immunity weakness	Others	Total
Number of respondents (%)	130 (29.4)	105 (23.8)	47 (10.6)	40 (9.0)	113 (25.6)	7 (1.6)	440 (100)

### 5. 산후풍 치료 경험

1) 산후풍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 산후풍 유증상자인 응답자 442명 중

증상 관련하여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는 65.8%,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2%를 차지하였다(Table 5).

Table 5. Treatment History of Postpartum Disease Women

	Total	Yes	No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42 (100)	151 (34.2)	291 (65.8)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165 (30.0)	385 (70.0)

2) 산후풍으로 치료받은 기관 산후풍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51명 중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54.3%로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32.5%는 의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Table 6. The Location of Treatment

	Total	Western medicine clinic	Korean medicine clinic	Pharmacy	Massage parlor	Others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151 (100)	49 (32.5)	82 (54.3)	1 (0.7)	19 (12.6)	0
Number of respondents (%)	165 (100)	58 (35.2)	85 (51.5)	1 (0.6)	21 (12.7)	0

3) 산후풍으로 치료받은 기간 산후풍으로 의과에서의 치료받은 기간은 1개월인 경우가 44.9%로 가장 많았다.

산후풍으로 한의과에서의 치료받은 기간도 1개월인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다 (Table 7).

Table 7. Period of Postpartum Treatment

	Treatment period									
	Western medicine treatment					Korean medicine treatment				
	Total	1 month	2 months	4 months	More than 4 months	Total	1 month	2 months	4 months	More than 4 months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9 (100)	22 (44.9)	5 (10.2)	12 (24.5)	10 (20.4)	82 (100)	39 (47.6)	14 (17.1)	13 (15.9)	16 (19.5)
Number of respondents (%)	58 (100)	27 (46.6)	6 (10.3)	13 (22.4)	12 (20.7)	85 (100)	41 (48.2)	14 (16.5)	14 (16.5)	16 (18.8)

4) 산후풍으로 치료받은 진료비

산후풍으로 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여성의 총 진료 비용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5.1%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후풍으로 한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여성의 총 진료비용도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다(Table 8).

5) 산후풍 치료 방법

산후풍으로 의과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치료로는 물리치료의 비율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이 67.3%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한방치료의 종류로는 침 치료를 선택한 경우가 79.3%로 가장 많았고, 한약이 67.1%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8. Expenses of Postpartum Treatment

	Medical expenses									
	Western medicine treatment					Korean medicine treatment				
	Total	~0.1 M*	0.1 ~ 0.5 M	0.5 ~ 1 M	1 M ~	Total	~0.1 M	0.1 ~ 0.5 M	0.5 ~ 1 M	1 M ~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9 (100)	1 (2.0)	27 (55.1)	11 (22.4)	10 (20.4)	82 (100)	6 (7.3)	40 (48.8)	12 (14.6)	24 (29.3)
Number of respondents (%)	58 (100)	3 (5.2)	32 (55.2)	11 (19.0)	12 (20.7)	85 (100)	6 (7.1)	43 (50.6)	12 (14.1)	24 (28.2)

\*M : million

Table 9. Types of Postpartum Treatment

	Treatment types (Multiple responses)											
	Western medicine treatment					Korean medicine treatment						
	Total	P.T*	Drug	Injection	Others	Total	H.M†	Acu‡	Moxa§	Cupping	P.A	Chuna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9 (100)	38 (77.6)	33 (67.3)	23 (46.9)	5 (10.2)	82 (100)	55 (67.1)	65 (79.3)	24 (29.3)	22 (26.8)	14 (17.1)	8 (9.8)
Number of respondents (%)	58 (100)	43 (74.1)	38 (65.5)	23 (39.7)	5 (8.6)	85 (100)	58 (68.2)	67 (78.8)	24 (28.2)	22 (25.9)	14 (16.5)	8 (9.4)

\*P.T : physical therapy, †H.M : herbal medicine, ‡Acu : acupuncture, §Moxa : moxibustion, ||P.A : pharmacopuncture

### 6. 산후풍 치료 만족도

산후풍으로 의과 치료 수진 후의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0%로 가장 많았고, '높음'이 34.7%로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낮음'이 14.3%, '매우 낮음'이 2.0%였다. 한의과 치료 후 만족도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51.2%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39.0%로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매우높음'과 '낮음'이 4.9%, '매우 낮음'은 없었다. 의과와 한의과 치료 후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모두 기대보다 효과가 없었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Table 10).

Table 10. Satisfaction of Postpartum Treatment

	Satisfaction after treatment											
	Total	Western medicine treatment					Korean medicine treatment					
		Very high	High	Neutral	Low	Very low	Total	Very high	High	Neutral	Low	Very low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9	0	17 (34.7)	24 (49.0)	7 (14.3)	1 (2.0)	82	4 (4.9)	42 (51.2)	32 (39.0)	4 (4.9)	0
Number of respondents (%)	58	1 (1.7)	22 (37.9)	27 (46.6)	7 (12.1)	1 (1.7)	88	5 (5.9)	43 (50.6)	33 (38.8)	4 (4.7)	0

The reason for the low satisfaction after treatment was that it was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 7. 향후 산후병 발생 시 치료 의사

1) 산후 불편 증상 발생 시 치료 필요성  
산후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치료 해야함' 또는 '치료 해야함'으로 응

답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가지 응답을 합하면 전체의 97.3%로 대부분 산후 불편한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1).

Table 11. Necessity of Treatment for Postpartum Discomfort Symptoms

	Total	Absolutely necessary	Necessary	Undecided	Unnecessary	Absolutely unnecessary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275 (50.0)	260 (47.3)	14 (2.5)	0.0	1 (0.2)

2) 산후 불편 증상 치료 권유 여부  
앞으로 본인이 치료를 받거나 권유할 의사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가지 응

답을 합하면 전체의 85.8%로 대부분 산후 불편한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2).

Table 12. Intention to Recommend Treatment for Postpartum Discomfort Symptoms

	Total	Very high	High	Neutral	Low	Very low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237 (43.1)	235 (42.7)	54 (9.8)	17 (3.1)	7 (1.3)

3) 권유할 치료 종류  
 향후 본인이나 주변에 산후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치료 및 관리를 권유할 기관으로 의과, 한의과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에서 치료 경험

이 있는 경우 81%가 의과 치료를, 17.2%가 한의과 치료를 권유한다고 답변하였고,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 72.9%가 한의과 치료를, 20%가 의과 치료를 권유한다고 답변하였다(Table 13).

Table 13. Types of Treatments to be Recommended

	Total	Western medicine clinic	Korean medicine clinic	Drug store	Massage parlor	Not needed	Others
Number of respondents with Western medicine treatment (%)	58 (100)	47 (81.0)	10 (17.2)	0	1 (1.7)	0	0
Number of respondents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	85 (100)	17 (20.0)	62 (72.9)	0	2 (2.4)	0	4 (4.7)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254 (46.2)	249 (45.3)	10 (1.8)	27 (4.9)	4 (0.7)	6 (1.1)

8. 산후조리

1)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전체 응답자 중 본인이 전반적으로 산후조리를 잘했다는 인식은 '보통'이 46.0%로 가장 많았고 '잘함'이 29.1%로 다음으

로 나타났다.  
 산후풍 유증상자중 본인이 전반적으로 산후조리를 잘했다는 인식은 '보통'이 47.1%로 가장 많았고 '잘함'이 27.1%로 다음으로 나타났다(Table 14).

Table 14. Recognition of Postpartum Care

	Total	Very good	Good	Normal	Bad	Very bad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42 (100)	16 (3.6)	120 (27.1)	208 (47.1)	81 (18.3)	17 (3.8)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27 (4.9)	160 (29.1)	253 (46.0)	92 (16.7)	18 (3.3)



2) 산후조리 장소  
 전체 응답자 중 산후조리를 실시한 장소는 '가정'을 선택한 경우가 62.2%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후풍 유증상자 중 산후조리를 실시한 장소는 '가정'을 선택한 경우가 58.4%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15).

Table 15. Location of Postpartum Care

	Total	Korean medical hospital	Postpartum care center	Home	Others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42 (100)	0	181 (41.0)	258 (58.4)	3 (0.7)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0	204 (37.1)	342 (62.2)	4 (0.7)

3) 산후조리 기간  
 전체 응답자 중 산후조리 기간은 1주 이상 2주 미만, 2주 이상 3주 미만, 3주 이상 4주 미만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산후풍 유증상자 중 산후조리 기간은 1주 이상 2주 미만, 2주 이상 3주 미만, 3주 이상 4주 미만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Table 16).

Table 16. Duration of Postpartum Care

	Total	~1 week	1~2 weeks	2~3 weeks	3~4 weeks	More than 4 weeks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42 (100)	21 (4.8)	128 (29.0)	128 (29.0)	104 (23.5)	61 (13.8)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28 (5.1)	148 (26.9)	155 (28.2)	141 (25.6)	78 (14.2)

4) 산후조리 필요성  
 산후조리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 '산후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3%로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Table 17).

Table 17. Necessity of General Postpartum Care

	Total	Absolutely necessary	Necessary	Undecided	Unnecessary	Absolutely unnecessary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337 (61.3)	189 (34.4)	17 (3.1)	5 (0.9)	2 (0.4)

5) 전통적 산후조리 수행 정도  
 (1) 실내 온도 조절  
 전체 응답자 중 실내온도 조절을 '잘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후풍 유증상자 중 실내 온도 조절은 '잘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8).

Table 18. Adjusting the Room Temperature

	Total	Very good	Good	Normal	Bad	Very bad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42 (100)	44 (10.0)	209 (47.3)	140 (31.7)	43 (9.7)	6 (1.4)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62 (11.3)	267 (48.5)	167 (30.4)	48 (8.7)	6 (1.1)

(2)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주의  
 전체 응답자 중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주의를 '잘함'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 34%로 그다음으로 나타났 다. 산후풍 유증상자 중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주의를 '잘함'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 34.8%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Table 19).

Table 19. Attention to Living Space

	Total	Very good	Good	Normal	Bad	Very bad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42 (100)	43 (9.7)	186 (42.1)	154 (34.8)	48 (10.9)	11 (2.5)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64 (11.6)	234 (42.5)	187 (34.0)	53 (9.6)	12 (2.2)

(3) 마음 안정  
 전체 응답자 중 마음 안정은 '잘함'이 36.0%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33.6%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산후풍 유증상자 중 마음안정은 '보통'이 34.8%로 가장 높았고, '잘함'이 34.2%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Table 20).

Table 20. Keeping Mind at Rest

	Total	Very good	Good	Normal	Bad	Very bad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42 (100)	26 (5.9)	151 (34.2)	154 (34.8)	82 (18.6)	29 (6.6)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46 (8.4)	198 (36.0)	185 (33.6)	90 (16.4)	31 (5.6)

(4) 성생활  
전체 응답 자중 산욕기에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잘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후풍 유증상자 중에도 '매우 잘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21).

Table 21. Not Having Sexual Relationship in Postpartum Period

	Total	Very good	Good	Normal	Bad	Very bad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42 (100)	228 (51.6)	152 (34.4)	45 (10.2)	9 (2.0)	8 (1.8)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278 (50.5)	198 (36.0)	55 (10.0)	10 (1.8)	9 (1.6)

(5) 식 단  
전체 응답자 중 건강한 식단을 한 경우 '잘함'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 36.2%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산후풍 유증상자 중에는 '잘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 36.4%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Table 22).

Table 22. Having a Good Meal

	Total	Very good	Good	Normal	Bad	Very bad
Number of respondents with puerperal wind disorder (%)	442 (100)	46 (10.4)	176 (39.8)	161 (36.4)	48 (10.9)	11 (2.5)
Number of respondents (%)	550 (100)	64 (11.6)	222 (40.4)	199 (36.2)	54 (9.8)	11 (2.0)

## IV. 고 찰

우리나라 분만율은 2015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출산을 대비 산후풍으로 치료받은 환자비율은 2016년 4.79%, 2017년 5.03%, 2018년 5.43%, 2019년 5.17%, 2020년 5.3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sup>6)</sup>. 산후풍 치료 1인 평균 요양급여비용총액은 2016년 62,142원, 2017년 64,817원, 2018년 64,357원, 2019년 71,226원, 2020년 73,091원으로 개인이 산후풍 치료에 소비하는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sup>7)</sup>.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방 의료 임상현장을 반영하여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를 실현하고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sup>8)</sup>. 산후풍과 관련된 한의학적 치료는 《經效產寶》에서 처음 기술되어 한의치료가 산후풍 치료의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왔으나<sup>1)</sup>, 현대 의료는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 있고 생활 환경과 거주

환경이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산후조리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자의 인식과 관점을 반영한 보편적인 진료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sup>9)</sup>. 서구권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서양의학에서의 산후 관리는 출산 후 합병증 관리의 목적이며, 대부분의 분만에서는 산욕기의 기간이 지나면 정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간주한다<sup>10)</sup>. 반면 한의학에서는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한 광범위한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으며, ‘百日爲度’, ‘小滿月’, ‘大滿月’ 등으로 산욕기 조리기간의 개념을 표현하였다<sup>11)</sup>. 한의학에서는 산후 관리를 단순 합병증 관리의 개념뿐만 아니라, 분만 후의 안정이 필요하며 복부 마사지와 적절한 식단 관리, 그리고 심리적 안정과 지지가 필요하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11)</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후풍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출산 경험이 있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 중 산후풍을 경험한 여성의 증상, 치료 여부, 한·의과 치료 수진률 및 만족도,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50명 중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출산 인원은 2명인 경우가, 출산 방법은 자연분만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응답자 중 대다수가 산후 증상이 있었으며, 그 중 관절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관절통증은 이전부터 산후풍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여

러 선행 연구에서도 근골격계 통증이 산후 증상의 최다빈도 주소증으로 확인되었다<sup>12-4)</sup>.

관절통증 다음으로의 다빈도 증상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에는 평균적으로 체중이 12.5 kg 증가하고<sup>15)</sup>, 임산부에게 추천되는 임신 중 체중 증가 정도는 체질량지수에 따라 상이하<sup>16)</sup>. 일반적으로는 출산 후 시간이 지나면 임신 중 증가되었던 체중이 감소하지만, 정상 체질량지수를 가진 산모의 28%가 출산 6개월 뒤에도 증가되었던 체중이 유지되어 산후 비만을 동반 한다<sup>17)</sup>. 산후 증가된 체중은 근골격계 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산후풍 치료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산후통증뿐만 아니라 산후 비만 관리 및 치료를 원하는 수요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산후 의료기관 이용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허리, 무릎, 발목, 손목 등 관절 또는 전신 관절의 통증’, ‘팔, 다리 등이 저리고 시린 등의 감각의 변화’, ‘추우면 증상이 심해지고 추위가 싫음’,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 ‘치아, 잇몸이 시리거나 아픔’에 체크한 응답자를 산후풍이 있는 여성으로 간주하였다. 산후풍 유증상자에 해당하는 여성은 총 442명으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들의 대다수는 잘못된 산후조리로 인해 산후풍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후풍 증상이 있었던 여성 중 증상에 대한 치료 또는 관리를 받은 여성은 3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풍으로 치료 또는 관리를 받은 기관으로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전체의 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산후

풍으로 치료 또는 관리를 받은 의과와 한의과 모두 기간은 1개월, 진료비용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을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의과에서 가장 많이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로, 한의과에서는 침치료로 나타났다. 의과와 한의과의 치료 후 만족도는 한의과 치료이후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관절통증이 최다빈도 증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물리치료와 침치료의 빈도가 높게 조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기간과 비용은 의과와 한의과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의료기관 이용률과 치료 이후 만족도는 한의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들은 산후풍 치료의 목적을 단순 합병증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적 통합적 진료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학적 치료 수요가 있고 만족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필요하다 및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산후조리는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진행하였고 산후조리 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인이 시행한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 가장 많았으나 실내 온도 조절,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주의, 마음 안정, 산욕기 성생활 금지, 식단으로 확인한 전통적 산후조리 수행정도는 '잘함' 또는 '매우 잘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후풍 여성 대다수가 불편 증상 발생 시 치료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관련 치료 권유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치료 경험은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후풍 치료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괴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의료서비스 이용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 소득분위, 직능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연관성이 깊다<sup>18)</sup>. 지자체의 지원으로 시행한 산후건강지원사업으로 복용한 한약치료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미루어 짐작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특성이 산후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측 된다<sup>12)</sup>.

우리나라 여성은 예로부터 전통적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 왔고, 전통적 방법을 통한 산후조리가 여성의 인생 평생에 걸친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한다<sup>19,20)</sup>. 본 연구에서 전통적 산후조리 방법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의 수행 정도는 아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응답자 대부분의 연령이 50대로 분만으로부터의 시간이 오래되어 실제상황에 대해서 회상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산후조리가 가정에서 시행되었다고 응답한 것 역시 현재가 아닌 이전 산후조리의 상황을 대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연령, 가구 소득, 출산 방법, 출산 인원 별로 산후풍 환자의 산후풍 발생 현황 및 의료기관 수진율, 산후조리 방법 등을 출산 이전과 출산 6개월 후, 출산 1년 후 등으로 구분하고 전향적, 후향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변인에 따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설문조사는 산후풍 환자들의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단계에서 산후 여성들의 산후풍 발생과 치료내역 그리고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반영함에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산후풍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표준화와 정부 차원 산후풍 한의 치료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산후풍을 경험한 여성의 증상, 치료 여부, 한·의과치료 수진율 및 만족도,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산후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반영하고자 시행하였다.

1. 산후 경험한 증상은 관절통증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비만, 부종, 피로함, 사지감각변화,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 치아 잇몸이 시리거나 아픔, 무기력함, 항배통, 정서장애, 추위가 싫음, 발한, 눈의 피로, 어지러움, 불면,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산후풍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산후조리를 잘못해서'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면역력이 약해져서'가 25.6%, '출산 전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가 23.8%로 나타났다.
3. 산후풍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전체 응답자 중 34.2%에서 확인되었으며 그중 54.3%는 한의학적 치료를, 32.5%는 의과치료를 받았다. 산후풍으로 의과 치료 수진 후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49.0%로 가장 많았고, 한의학적 치료 후 만족도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51.2%로 가장 많았다.
4. 출산후 불편한 증상 발생 시 대부분의 응답자가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본인이나 주변에 산후 불편증상이 생기면 치료

및 관리를 권유할 기관으로 의과, 한의과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5. 전체응답자와 산후풍 응답자 모두 산후조리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 산후조리를 실시한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 기간은 '1주 이상 2주 미만', '2주 이상 3주 미만', '3주 이상 4주 미만'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6. 전통적 산후조리 수행정도는 실내 온도 조절, 생활하는 공간 주의, 마음 안정, 건강식단에서 전체 응답자와 산후풍 응답자 모두 '잘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생활 금기는 '매우 잘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Received : Apr 19, 2022

Revised : Apr 19, 2022

Accepted : May 27, 2022

## References

1.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Compilation Committee.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下). 4th. ed. Seoul:Jeongdam Publisher. 2021: 767, 846-7.
2. Oh SK, et al. A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iagnostic Definition of Sanhupung (U32.7) Using the Delphi Method. J Korean Obstet Gynecol. 2021;34(2): 16-30.
3. Jung YS, Kwon YD. Factors Affecting

- the Use of Postpartum Care Servi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7;11(1):143-58.
4. Park SY, et al. A Survey on Patient's Experience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Perception of Health Care System for Developing of a Korean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raffic Injuries. J of Korean Med Rehabilitation. 2020;30(2):139-52.
  5. Jeong MY, Cho SH. A Study on the Condition and the Recognition of Postpartum Care on Women with Postpartum Disease. J Korean Obstet Gynecol. 2018;31(3):79-96.
  6. Healthcare Bigdata Hub. Statistics of national concern/behavior.[Cited April 19, 2022].Available form: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IlnsBhvInfo.do>
  7. Healthcare Bigdata Hub. Disease classification statistics.[Cited April 19,2022].Available form: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4thDsInfo.do>
  8. Ji SM, et al. Consensus on Definition and Quality Standard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Using RAND Method.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2010;20(2):1-16.
  9. Bae GM, Cho HS, Lee IS. The Review of Postpartum Care Beliefs and Practices According to the Cultures. J Korean Obstet Gynecol. 2009;22(1):231-42.
  10. Bae GM, Lee IS. The Study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n Postpartum Symptom among Korean, Korean resident in America and American.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2):131-44.
  11. Lee TK. A Literary Study of the Postpartum Care. J Korean Obstet Gynecol. 2001;14(1):209-28.
  12. Jeong SY, Lee EH. A Retrospective Study of Mothers Who Received Herbal Medicine Treatment Using the Jeollabuk-do Postpartum Health Support Project at One Korean Medicine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21;34(3):49-64.
  13. Jang SR, Park YS, Kim DC. The Clinical Analysis of 104 Sanhupung Patients that Visited at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3):192-204.
  14. Hwang YS, et al. Analysis on Outpatients with Postpartum Disease at the Korean Gynecology Clinic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18;31(3):61-78.
  15.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Compilation Committee.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上). 4th.ed. Seoul:Jeongdam Publisher. 2021:258-9.
  16. Dutton HP, et al. Obesity in Pregnancy -optimizing Outcomes for Mom and Baby. Med Clin North Am. 2018;102(1):87-106.
  17. Scholl TO, et al. Gestational Weight Gain, Pregnancy Outcome, and Postpartum Weight Retention. Obstet Gynecol. 1995; 86(3):423-7.
  18. Lee KE, Im BH. Utilization Behavior of Medical Services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Preval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2018;19(7):443-52.

19. Yu EK, et al. Development of WISE HHSanhujori Guideline. Seoul:Korean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3:1-7.
20. Ahn SH.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Korean Traditional Postpartum Care Performance and Postpartum Health Statu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1):37-46.